

윈도와 인텔의 합성어인 윈텔리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라는 미국의 두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표준을 통해 세계 컴퓨터산업에 구축한 '구조적 지배'를 상징한다.

## 영국형 산업모델 → 포디즘 → 윈텔리즘

**정** 보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스탠더드 (global standards)'를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글로벌 스탠더드 경쟁은 단순히 제품개발과 기술표준의 태두리를 넘어서 제도와 생각의 영역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 경쟁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윈텔리즘(Wintelism)'이다. 윈텔리즘이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구축한 특수한 관계를 윈텔(Wintel)이라는 합성어에 담아낸 것이다. PC산업의 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만남은 단순히 두 기업의 기술협력 차원을 넘어서 '윈텔(Wintel)'이라는 말에 '-이즘(-ism)'이라는 접미어를 붙여야 했을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윈텔리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라는 미국의 두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표준을 통해 세계 컴퓨터산업에 구축한 '구조적 지배'를 상징한다.

### 기술표준이라는 이름의 '구조적 권력'

거창하게 컴퓨터산업의 역사를 논하지 않더라도 윈텔리즘이 발휘하는 위력은 정보사회를 사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고 예를 들어 보자. 대부분의 경우 컴퓨터 전원스위치를 켜고 나면 전자음을 내며 휘날리는 윈도 운영체계의 로고를 만난다. 그리고는 웹브라우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고 원하는 웹사이트의 인터넷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야후 또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포털 사이트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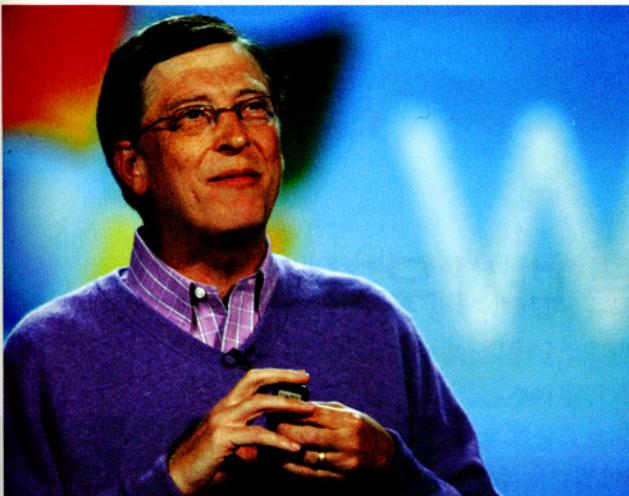
용해서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윈텔은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으로 가는 길의 관문이다. 물론 다른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다른 길을 닦지 않는 한 윈텔이 열어놓은 관문이 제일 크고 가장 편하다. 그야말로 윈텔은 컴퓨터와 인터넷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윈텔은 기술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구조적 권력'을 행사한다. 주기적으로 충돌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을 바탕으로 윈도XP나 윈도비스타 등과 같은 컴퓨터 운영체계가 출시될 때마다 전 세계 컴퓨터업계가 지각변동을 겪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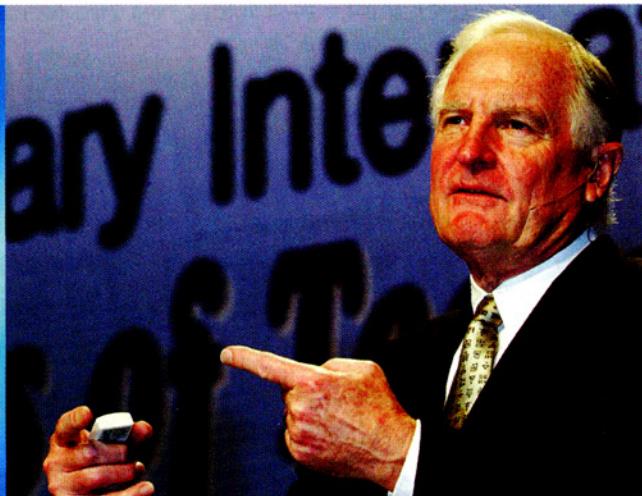
윈텔리즘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의미는 단순히 기술표준 사례에 국한되지 않는다. 윈텔리즘은 1980년대 이래 컴퓨터산업 전반의 구조변동 와중에 등장한 산업조직이나 정부정책 및 기타 제도적 환경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대변한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과 같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첨단 기업을 배양해 낸 미국 컴퓨터산업의 '제도표준'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윈텔리즘은 19세기 '영국형 산업모델'이나 20세기 전반의 '포디즘'(면집자 주: Fordism, 조립라인 및 연속공정 기술을 이용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축적체제를 일컫는 말) 그리고 최근의 '일본형 산업모델'에 비견된다.

이렇게 부상한 윈텔리즘은 컴퓨터산업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따라잡아야 할 기업과 산업의 모델,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의 표준이었다. 실제로 세계의 기업들은 컴퓨터산업의 새로운 표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



인텔사의 크레이그 배럿 회장

에 맞춰 기업구조와 비즈니스관행을 조정하라는 압력을 받아야 했다. 각국의 정부들도 이러한 기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 우리의 생각까지도 바꾸어야 하는, 그야말로 서슬 퍼런 권력을 의미했다.

### 굿바이 윈도XP, 웰컴 윈도비스타

1990년대 일본의 PC산업에게도 윈텔리즘은 구조적 제약인 동시에 따라잡아야 할 글로벌 스탠더드일 수밖에 없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자 기술대국인 일본은 세계 컴퓨터산업에서 미국시장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독자적인 PC표준을 보유했던 유일한 나라였다. 실제로 80~90년대에 일본의 컴퓨터업체들은 'NEC PC-98시리즈'로 알려진 독자적인 PC표준을 가지고 윈텔 표준에 맞서서 컴퓨터 표준경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게이레쓰(系列)형 산업조직과 통상산업성의 산업정책으로 대변되는 일본형 산업모델도 윈텔리즘의 제도모델과 비교되는 제도적 표준경쟁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 일본의 PC산업은 윈텔리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한국도 윈텔리즘의 위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은 마찬가지다. 일본과는 달리 일찌감치 윈텔 표준을 수용했던 한국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인 워드프로세서 분야에서 전선(戰線)이 형성됐

다. 90년대 후반 들어 경영난에 봉착한 '한글과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력사업이었던 아래아한글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아래아한글을 살리기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아래아한글 살리기 운동의 표면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사태 전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골리앗을 상대로 벌였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싸움이 그야말로 상처뿐인 영광이었다는 인상을 자울 수 없다.

2001년 출시돼 한 시절을 풍미했던 윈도XP 시대가 올해 6월 막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비스타'라는 새로운 운영체계로 옮겨가면서 제품생산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업계와 소비자들은 보안 기능이 강화된 대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윈도비스타에 대해 그다지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난 십여 년 동안 그랬듯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진지하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칫 우리가 더욱 원치 않는 '무규칙의 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지금 그에 대한 뒤늦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김상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sangkim@snu.ac.kr